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연구

A Study of Urban Housewives' Financial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Their Economic Well-Being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전공

강사 유을용*

교수 계선자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 Yoo, Eul-Yong

Professor : Kye, Sun-J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gain an understanding about urban housewives' stress in family financial management, their coping strategies, and their sense of economic well-being, which will eventually provide some baseline data for policy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mean score of the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related stress among urban housewives was 2.61 when the maximum level was set at 5. In order to overcome the stress from financial management, housewives utilized various strategies, such as purchasing management,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information gathering, getting a loan, and delaying payments. The averag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among urban housewives was 2.82 when the maximum level was 5. Second, among socio-demographic factors, the family's monthly income and the husband's job satisfaction were the two most significant factors that affected the level of financial management stress among housewives. Third, there was a difference in employing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level of stress. The group with a higher level of financial stress employed more coping strategies than the group with a lower level of stress. Fourth,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economic well-being, depending on the types of coping strategies employed. Fifth, the results from regression analyses, which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ve explanatory power of different independent variable groups including subjective factors, financial management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showed that socio-demographic and objective economic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economic well-being.

▲주요어(key words) : 재정 스트레스(Financial Stress), 대처행동(Coping Strategies), 경제복지감(Economic Well-Being)

1.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현재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계속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대한매일, 2001년 9월 29일자), 소비자 물가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상승되었음을 볼 때(동아일보, 2001년 9월 29일자) 이와 같은 경제적 상황은 가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외에도 가계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다양한 요구와 소득 및 자산수준은 변화하며 실직, 사고, 질병, 사망 등 가정 내

적인 요인으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내적·외적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가계는 그 관리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였다. 실제 주부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더라도 주부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문제가 가계의 경제적 문제이며 가정생활사건에 대한 여러 연구(김명자, 1992; 이정우·최덕경, 1992; 조혜정·임정민, 1994)를 보아도 생활의 기본 자원인 금전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생활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가계의 재정 스트레스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재정적 사건, 재정문제 등으로 연구되었을 뿐(이경옥, 2000; 이정우·

* 주저자 : 유을용 (E-mail : jsyu7@chollian.net)

정진희, 1999; 정혜경,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홍향숙 1999; Lee, 2000; Voydanoff et. al., 1988; Zinka & Buckner, 1989), 스트레스의 관점에서 가계관리자의 실제적인 재정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다룬 논문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개인은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도 이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있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면 스트레스 상황이 오히려 개인의 성장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가족이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스트레스 원인의 심각성이나 스트레스 발생빈도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더구나 가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점차 복잡해져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도 증가하고 있어 스트레스 상황에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장윤옥·정서린, 1998).

그러므로 주부가 인지한 재정 스트레스는 대처행동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행동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위기감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고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경제복지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도시가계의 부채 부담을 포함한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대부분의 연구(손상희, 1995; 이경옥, 2000; 주인숙, 1995;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Bartholomae, 2001; Bruce, 1996; Burr et. al., 1995; Varcoe, 1990)에서 자산이용, 절약구매, 차용행동, 지불연기, 가족의 노동력 활용 혹은 적극적 노력, 소극적 노력 등의 대처행동으로 일관되어 왔다.

한편,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복지감과 삶의 질의 중심요소인 경제생활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복지감은 재정만족도의 개념에서 대부분 가계재무관리행동과 연관되어 연구(계선자·강기정, 1998; 계선자·유을용, 1999; 김순미, 1993; 김혜정·이기영, 1997; 김효정, 2000; 안승철·김년희, 1999; 이상협, 1999; 주인숙·이연숙, 1996; 홍향숙, 1999; 황덕순·정운영, 2001; Hyun et. al., 1993; Sumarwan & Hira, 1993)되어 왔다. 경제복지감은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연구와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로 구분되어 즉,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로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고보선·이영호, 1995; 고보선·임정빈, 1998; 김연정·김순미, 1991). 그러나 객관적으로 높은 경제복지를 지닌 가정이 반드시 가정 내·외 자원을 적절하게 인지하고 현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높은 만족을 보인다고 할 수 없으며 객관적 복지수준은 낮더라도 생활수준과 표준과의 차이를 줄여 가면서 내적 통제를 잘 하여 현재의 자원을 적정하게 인지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복지를 결정함에 있어 개인이 인지하는 주관적인 복지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계의 재정 스트레스와 이에 대한 대처행동 그리고 경제복지감은 개별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함께 고려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도 불구하고 가계의 경제적 위기 혹은 재정문제와 이에 따른 대처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박선옥, 1996; 손상희, 1995; 이경옥, 2000; 정용선·신용선·이경옥, 2001; 제은석,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Bartholomae, 2001; Chancey, 1997; Ganzert, 2000; Gomel, 1995; Vandsburger, 2001), 대부분 재정문제와 대처행동까지만 다루었을 뿐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잠정적으로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주부가 인지한 재정 스트레스를 지출, 자산, 소득, 부채 스트레스로 세분화하여 영역별로 배경변인에 의한 영향력을 고찰함과 동시에 대처행동양식을 계획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정보탐색 행동, 구매관리 행동 차원에 따라 각각의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그리고 경제복지감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가계관리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합리적인 대처행동을 모색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가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가정경제복지 향상을 위한 가계 재무관리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재정 스트레스란 경제생활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긴장이나 고통, 위협에 대해 주부가 지각하는 곤란 정도와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노자경, 1996) 가계의 재정 스트레스는 경제적인 어려움, 긴장, 압박, 불안정성 등과 동일개념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들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계는 현재 욕구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원으로서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계가 가족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원 즉 시간, 에너지 및 화폐 등의 부족에서 오는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무관리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Varcoe, 1990).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위험은 경제적 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위험은 개인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물가 및 이자율의 변동, 실업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개인적 위험은 소득자의 사고, 사망, 불구가 되는 위험 등으로 일반 경제상황과 별도로 개개인이 처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이 가계에 직·간접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계는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기춘(1998)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실업,

특히 가장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부족과 수지불균형 및 각종 사건을 들고 있다. 가계의 재정문제를 유발시키는 개인적·경제적 외부환경 이외에 가계관리자가 재정문제에 직면하는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자원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소득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정선희·오정옥, 1991). 이와 더불어 비합리적인 소비행위도 가계의 재정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일상적인 지출과 저축의 결정은 적은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습관적 지출, 충동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높은 준거집단의 영향으로 자신보다 사회계층이 높은 이웃을 모방하여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재정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

한편 가계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계관리자의 재정 스트레스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인지하는 가계의 재정문제 혹은 재정 스트레스는 학자마다 그 영역을 달리 설명하고 있다. Voydanoff 등(1988)은 가장의 사망, 무능력·실직, 직업전환, 질병에 의해 가정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을 때, 가족원의 질병이나, 예기치 않은 현금의 필요에 의해 갑작스런 지출이 생길 때, 자녀교육, 주택마련이나 이사 등과 같이 미래의 요구나 예기했던 요구에 의해 비교적 큰 재정적 지출이 생길 때, 부채를 졌을 때 재정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 Varcoe (1990)의 연구에서는 재정적 사건을 직업관련 사건(은퇴, 실직, 직업 전환), 건강관련 사건(심장병, 질병, 사고, 소득원의 죽음), 그리고 가족관련 사건(이혼, 아이출산, 자녀 대학교육)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 직업관련 사건을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재정 문제라고 보고하였다.

IMF 구제금융체제 직후, 도시가계의 재정문제를 연구한 이정우·정진희(1999)의 연구에서는 재정문제의 영역을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노후 및 긴급 자금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주부들이 5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족한 자산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재정 스트레스 원으로 가계를 둘러싼 경제적 불안의 요소를 설명한 황덕순(1995)은 경제적 불안이란 가계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하여 경제적 안정이 위협당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상대적 박탈 등의 5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었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물가문제, 소득문제, 고용문제, 재정문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2.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개인은 변화에 직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처행동을 모색하게 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행동을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가진 자원을 넘어

선다고 평가되는 내·외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 라고 정의하였으며, Schuler (1984)는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자체를 수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적 경험을 회피하고 통제하여 스트레스의 문제가 되는 특성을 중화시키는 것 그리고 개인이 관리 가능한 영역 내에서 정서적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김양희 등, 2001에서 재인용).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한 대처행동을 유형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손상희, 1995; 제은석,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황덕순, 1995; Buehler & Hogan, 1986; Varcoe, 1990; Voydanoff, 1990; Voydanoff & Donnelly, 1989)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김경신·김오남, 1997; 이미리, 1995; Compas et al., 1993; Ebata & Moos, 1991). 문제중심 대처행동과 정서중심 대처행동이 그것인데 문제중심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형태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의미하며, 반면 정서중심 대처행동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데 초점을 둔 대처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제중심 대처행동은 접근 대처행동 혹은 능동적 대처행동이라고도 일컬으며 정서중심 대처행동은 회피 대처행동 혹은 수동적 대처행동이라고도 한다(정문자·이미리, 1998).

1990년대에 이르러 Martin과 Burr(1992)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대처전략으로 인지적 전략, 의사소통전략, 감정적 전략, 관계전략, 정신적 전략, 환경적 전략, 발달적 전략의 7가지를 들어 연구하였는데 이 중 경제위기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제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는 인지적 전략과 주변의 친지나 친척 등 타인의 도움을 구하는 환경적 전략, 개인의 자원성을 좀 더 개발시키는 발달적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Bruce (1996)는 가계의 재정위기에 있어서 대처전략을 크게 수입의 증대와 지출의 삭감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정서린·장윤옥(1996)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자원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가정자원 지각 정도에 따라 가정자원 스트레스지각 수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본 연구에서 정서지향적 대처행동, 문제지향적 대처행동, 방임적 대처행동의 3개 요인으로 대처행동을 연구하였다.

국내연구로 최자령·임정빈(1996)은 도시가계가 재정적 사건을 경험할 경우 이루어지는 대처행동을 자산이용, 차용행동, 절약구매, 지불연기의 4가지 요인으로 연구하였으며, 황덕순(1995)은 가계가 경제적 불안을 극복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대처행동을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피동적 적응행동은 경제적 불안이 발생한 후 이를 처리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불안이 심한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사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로 부업, 집에서 옷수선, 저축 등의 해약사용, 금전대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의도적 관리행동은 가계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수행하여 사전에 경제적 불안을 미리 예방하는 행동으로 가계부 기록, 저축, 계획지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셋째, 규범적 절약행동은 일상생활에서 근검절약 하는 행동으로 충동구매 피하기, 기일 내 공과금 납부, 외식절제 등이 포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주부의 대처행동은 한 두 가지의 대처행동으로 규정되지 않고 그 이상의 여러 행동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계획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정보탐색 행동, 구매관리 행동으로 유형화하여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

McGregor와 Goldsmith(1998)는 경제복지감이란 개인과 가족원이 느끼는 경제적 안정감과 걱정감의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실직, 질병, 파산, 빈곤 등의 재정관련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험하는 전체 복지감과 생활의 질의중심요소로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정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다.

Walson(1991)에 의하면 경제적 복지는 전반적 복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영역 중 하나이며 개인 또는 가족원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걱정감 및 안전성이라고 하였다. 박미금·계선자(1994)도 경제복지감이란 경제생활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정의 객관적 경제상태 혹은 자원사용에 대한 개인의 지각도가 경제복지감이며 이러한 가정의 경제복지감은 경제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여 파악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복지감은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낮아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계가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가족의 소비행동이 비합리적일 때, 혹은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주부의 가계재무관리능력이 부족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필요로 할 때 재정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계관리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만족감은 가족원의 정서적, 주관적 반응으로서 관리과정 전체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도 있고 특정부분과 관련하여 경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복지감은 가정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질과 양, 자원에 대한 요구 등과 같은 투입요소와 가족구성원의 관리기술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Walson과 Fitzsimmons(1993)도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이 경제적 걱정감, 안정감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재정상태와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만족감 등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주관적인 가계경제복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판단하는 소득의 적정도, 총가계소득에 대한 적정도, 저축액수에 대한 만족도, 현재 빚에 대한 불만의 정도, 현재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계 순자산에 대한 만족도, 재정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에 대한 만

족도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경제복지감을 측정하였다. 다시 말해 경제복지감은 개인이나 가족의 재정 적정도와 안정도의 정도를 말하며, 경제복지감은 경제지표에 의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기도 하고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가계의 객관적 경제복지수준은 가계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재정상태로서 일정기간 동안의 화폐소득액, 소비지출액, 총자산, 순자산, 총부채 등의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사용하여 복지수준으로 측정된다(Winter et. al., 1988). 즉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상태 및 재화와 내구재 소비와 같은 변인(Godwin & Carrol, 1986)을 사용하거나 저축, 부채, 순자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객관적 경제복지감을 연구하였다(Fitzsimmons & Leach, 1994).

많은 연구자들이 가계의 복지와 관련된 평가는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인 인지를 동시에 파악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Williams(1994)은 경제복지와 생활의 질은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즉, 객관적인 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동일한 재정자원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인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므로 가계의 경제복지상태는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방법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계의 객관적 경제 복지감과 주관적 경제복지감을 토대로 주부가 인지하는 가정내 적정소득의 양, 생활용품 구매에 대한 만족감, 비상준비금에 대한 만족도, 과거의 가정경제와 비교함에 있어 경제수준에 대한 향상감 등의 내용을 포함 한 총체적인 경제복지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4.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 간의 관계

1)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관계

Voydanoff와 Donnelly(1989)는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적 불안이 큰 가계일수록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즉, 가계는 경제적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Varcoe(1990)도 예상하지 못한 가계재정요구 사건이 생겼을 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대처행동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비상금을 사용하거나 저축을 찾아 쓰거나 새 옷 구매와 교양활동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등의 긴축 재정활동으로 대처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차용이나 지불연기와 같은 대처행동 양상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황덕순(1993)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대처행동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대처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즉 재정적 안정도가 낮은 집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같이 경제적 불안수준이 높아 재정요구도가 높은 집단에서 대처행동 점수가 높았다. 최자영·임

정빈(1996)은 금전관련, 자동차 및 내구재 관련사건은 차용행동으로, 금전관련, 직업관련 사건은 지불연기의 대처전략으로, 가족관련 사건은 절약구매 대처전략으로, 금전관련과 자동차 및 내구재 관련 사건은 자산을 이용하여 대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2) 도시주부의 대처행동과 경제복지감간의 관계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가계관리자가 재정 스트레스 및 재정위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할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경옥, 2000; 정용선 등, 2001; 홍은실, 1996; Patricia et. al., 1985). Patricia 등(1985)과 정용선 등(2001)은 가정관리자가 재정적 위기에 자원의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때 경제생활만족감이 향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적 자원의 부족은 미래의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떨어뜨리고 위기감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경제생활만족감까지 감소시키므로 가계자산의 양적 증대를 도모하는 노력이 경제생활만족감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처라고 지적하고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는 경제생활만족감은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성취되므로 지나친 욕구 억제와 같은 소극적 태도의 대처는 만족감을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Titus 등(1989)도 경제생활만족감은 관리자의 능력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으며 관리자의 능력이란 확장적 자원관리에 대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이정옥, 2000에서 재인용).

한편 계획행동 유형과 생활만족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두경자(1993)는 표준이 높을수록 관리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하였으며, 이기영·조영희(1992)는 목표중심적인 계획 행동을 하였을 때 생활만족감이 증가하고 제약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만족감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5.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1) 연령

이광주(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남편의 퇴직 및 질병 또는 배우자의 실직 등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 한 반면 Varcoe(1990)은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교육비 등의 재정적 문제를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노자경(1996)의 연구에서도 40대는 생활주기 상 자녀의 교육 등 여러 가지 경제자원의 요구가 많은 시기이므로 소비지출, 자산, 소득의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였다.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볼 때 이경옥(2000)의 연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현재의 자원구조나 자원의 정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현 소득 범위 내에서 욕구를 억제하고 지출을 줄이려는 소극적 대처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연령이 적을수록 소득확장과 정보탐색을 통한 가계자원의 구조적 변형과

자원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적극적 대처를 많이 한다고 하였다.

한편 연령과 경제복지감 사이의 관계를 볼 때 다수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 및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다(김순미, 1993; 노자경, 1996; 이종혜, 1993; 정혜경, 1999; 홍향숙, 1999; 최자령·임정빈, 1996; Winter et. al., 1988; Sumarwan & Hira, 1993). 반면 임정빈 등(1998)의 연구와 김연정·김순미(1991)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정적 만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2)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볼 때 김혜정·이기영(1997)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지불연기 행동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노자경(1996)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복지수준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계선자·유을용, 1999; 고보선, 1992; 김재경·문숙재, 1992; 황덕순, 1995; Walson & Fitzsimmons, 1993). 그러나 임정빈 등(1998)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지출 및 경제손실의 문제를 높게 인지하여 학력과 경제복지감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박미금·계선자(1994)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직업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다시 말해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가족원의 욕구충족과 가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분배에 제약을 적게 받아 재정 문제의 경험을 적게 하므로 가계재정복지 수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유을용, 1999; 고보선, 1995; 김연정·김순미, 1991; 김재경·문숙재, 1992; 이경옥, 2000; 한정화, 1997; 홍향숙, 1999).

한편 홍향숙(1999)은 가구주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경우 재정만족도가 높으며 반면에 생산직일 경우 재정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고보선(1996)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직업지위가 높을 때 객관적 가계재정복지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주부의 취업 여부와 경제복지감은 조혜정(1994), 김효정(2000)에 의하면 취업한 주부일수록 전업주부 가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음으로 인해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Hafstrom(198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직업은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으며 같은 맥락으로 주부의 취업에 따른 경제복지감을 연구한 Sumarwan과 Hira(1993)도 취업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2) 객관적 경제변인

(1) 월평균소득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가정경제의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며(고보선·임정빈, 1992; 김미현 등, 1993; 박선옥, 1996; 이정우·최덕경, 1992), Bruce(1996)도 가계의 소득이 높을수록 재정적 긴장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가계소득과 대처행동을 볼 때 김혜정·이기영(1997)은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지출절감전략을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황덕순(1995)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대처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경제적으로 불안할수록 대처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소득은 가정생활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계소득이 재정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계선자·박미금, 1994; 고보선, 1995; 김시월, 1999; 계선자·유을용, 1999; 김경숙·이정우, 1993; 이경옥, 2000; 이종혜, 1993; 이선형·이연숙, 1997; 황덕순·정운용, 2001; 홍향숙, 1999; Bruce, 1996; Danes & Retting, 1993; Kratzer, 1992; Poter & Garman, 1993; Royal, 1995; Sumarwan & Hira, 1993)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2) 주택소유여부

대체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전세나 월세의 가계보다도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계선자·박미금, 1994; 계선자·유을용, 1999; 김정숙, 1996; 한정화, 1997). 김정숙(1996)은 자가의 가계와 월세의 가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즉, 자가의 가계가 월세의 가계보다 재정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 한정화(1997)는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3) 부채액수

일반적으로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들은 재정적자나 지불연기, 가계파산 등과 같은 재정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가 이러한 재정문제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성영애·양세경, 1995). 가계부채와 대처행동간의 관계를 볼 때 손상희(1995)는 총 부채액이 2000만원 이상인 가계는 부채액이 그 보다 적은 가계에 비해 적극적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많은 연구(심영, 1993; 이경옥, 2000; 주인숙, 1995; 황덕순·정운용, 2001; 홍향숙, 1999)에서 부채액이 많을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부채 부담이 있는 가계의 경우 부채는 일종의 고정 지출 항목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소비패턴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가계복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주관적 변인

(1) 부부 의사소통도

의사소통도와 경제복지감과의 관계를 볼 때 부부간 의사소통도는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강기정, 1999; 박미금·계선자, 1994; 김정훈, 1995; 김효정, 2000; 황덕순·정운용, 2001; Mugenda et al., 1990). 특히, 황덕순·정운용(2001)에 의하면 재무의사소통은 경제복지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부부간 재정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보다 전반적인 재정적 문제를 잘 파악하고 가족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므로 인해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2) 가족응집성·적응력

고보선(1996)은 부부간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한정화(1997)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이 연결되고 밀착될수록, 가족적응력이 구조적일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3) 내외통제성

통제소재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볼 때 장운옥(1997)에 의하면 외적통제성이 강한 주부가 내적 통제성이 강한 주부에 비하여 인적·물적 자원관리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백기청(1987)의 연구에서도 내외통제성에 따라 스트레스를 인지하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김혜정·이기영(1997)의 연구에 의하면 내적통제 지향적일수록 예산관련 전략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예산관련 전략을 잘 수행한다고 밝혔다.

내외통제성과 경제복지감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내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보선, 1996; 고보선·임정빈, 1998; Lown, 1986). 같은 맥락으로 Davis와 Helmick(1985)의 연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사람일수록 미래에 대한 긍정적 회구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생활만족감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4) 생활정보활용도

생활정보활용도와 경제복지감 사이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다(강기정, 1999; Bowen et al., 1997). 즉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정보를 보다 많이 활용하는 주부일수록 경제복지감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준거집단영향력

준거집단과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과 관련하여 연구된 논문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준거집단과의 비교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재정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효정, 2000).

(6) 자원지각도

자원지각도를 변인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적정인지도의 변인을 고찰하였다. 주부의 자원적정인지도 및 소득적정감이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은 높다고 보고되었다(강기정, 1999; 계선자·박미금, 1994; 박미금, 1993; 계선자·유을용, 1999; Enevoldsen, 1994; Royal, 1995).

(7) 남편의 직업 만족도¹⁾

계선자·한정화(1997)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부는 결혼하면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여건에 의해 남편의 직업에 만족할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김미진(1995)의 연구에서도 남편의 직업 전환 갈등이 클수록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밝혔다.

III.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1>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도시주부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객관적 경제변인, 주관적 변인)은 재정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라 대처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도시주부의 대처행동에 따라 경제복지감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5>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대한 배경변인, 재정 스트레스 변인 및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2. 용어의 정의

1) 배경변인

부부 의사소통도는 부부간의 대화 방법, 빈도, 표현정도 등 경제문제를 포함한 가정 내·외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대해 주부가 인지하는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가족응집성·적응력이란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 대하여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개인이 가족 내의 다른 성원들과 어느 정도 분리 혹은 연결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주부가 느끼는 자각 정도를 의미하고 가족적응력은 가족 구성원이 상황적,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가족 내에서의 역할, 규칙 그리고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처능력에 대하여

주부가 자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내외통제성은 자신의 운명을 누가 통제한다고 믿는 개념으로 내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외적 통제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운이나 기회 또는 강력한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통제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생활정보활용도란 가계재무관리, 물가, 주식, 세금 그리고 소비자 문제 등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대중매체와 관련기관 등에서 탐색하고 이를 일상생활에서 실제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준거집단영향력은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포함하는 1차 준거집단과 정당, 각종 협회, 교회 등의 2차 준거집단으로 분류되는 준거집단에 의하여 생활방식이나 구매성향 등에 대해 주부가 받는 영향력 정도를 의미한다. 자원지각도란 가정의 소득 획득 수단인 직업이나 가계생산의 수행능력을 인적자원으로 간주하고, 주부가 행하는 직업 또는 가계생산이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 정도를 의미한다. 남편의 직업 만족도의 개념은 남편의 현재 직업, 맡고 있는 업무, 지속 가능성, 보수, 직장동료 혹은 상사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의미한다.

2) 매개변인

(1) 재정 스트레스

가계의 지출, 자산, 소득, 부채와 관련된 재무관리 상황에서 주부가 인지하는 갈등, 긴장 혹은 부담감 정도를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 지출 스트레스는 각종요금, 자녀의 등록금 및 생활필수품 구매 등을 포함한 일반지출 영역과 친·인척 관련 경조사비, 자동차 유지 및 수리비, 가구 혹은 가전제품 구입비 등 특별지출 영역과 관련된 가계의 부담감 정도를 말하며 자산 스트레스는 미래 자녀의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 및 가구의 은퇴 후 생활자금 등에 대비한 비상 준비금과 관련된 자산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도를 말한다. 세 번째 하위영역인 소득 스트레스는 가정 내 불규칙한 소득, 생활비 부족 혹은 소득 단절 등의 요인으로 인한 갈등, 불안감 정도를 의미하며 부채 스트레스란 가정 내 부채가 있거나 자산 대비 부채의 비율이 높은 경우 발생하는 주부의 심리적 부담감을 말한다.

(2) 대처행동

가계의 다양한 재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주부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반응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 계획관리 행동이란 금전자원의 사용에 있어 사전에 미리 계획하는 행동을 말한다. 즉 평소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각 비목별로 예산을 세운다거나 계획에 없었던 지출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절제된 행동 등을 포함한다. 지불연기 행동은 공과금 납부 및 정기적인 적금에 대한 지출, 부채에 대한 이자 등 가계비 지출을 연기하는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금지불 혹은 적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

1)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주부가 인지하는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차용행동이란 가계의 경제적 곤란 상황에서 일시적 극복을 위하여 신용카드 및 은행, 회사를 통하여 일액의 부채를 얻는 행동을 의미하며 상담·정보탐색 행동이란 가계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가족과 회의를 하거나 혹은 소득증가나 부채감소를 위하여 친구, 이웃과 정보를 교환한다거나 재정전문가와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상담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구매관리 행동이란 일종의 통제행동으로 가족원의 요구 정도를 판단하여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는데 필요한 관리전략이다. 즉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금전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구매 한다거나 최소한의 생활비 및 사교육비 지출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3) 종속변인 : 경제복지감

경제복지감이란 객관적 및 주관적 입장에서 접근하여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개인적 느낌으로 주부가 인지하는 가정내 적정소득의 양, 생활용품 구매에 대한 만족감, 비상준비금에 대한 만족도, 과거와 비교함에 있어서 경제수준에 대한 향상감 등의 내용을 의미한다.

3. 조사도구의 구성

부부 의사소통도는 Goldsmith(1996)의 연구를 기초로 관련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총 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Cronbach's α 는 .86 이다. 가족응집성·적응력은 Olson, Porter 그리고 Lavee(1985)가 개발한 FACEIII(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III)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최연실(1996), 김수연(1998)의 설문을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각각 .84, .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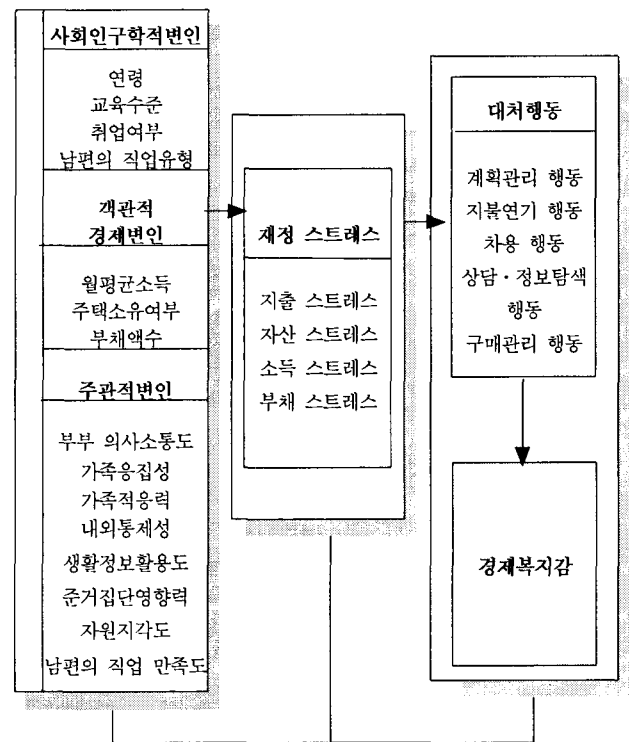
내외통제성은 Potter(1966)의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I-E) scale 을 참고로 한 김은정(1993), 김혜정·이기영(1997)의 척도를 사용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는 .64로 나타났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생활정보활용도는 김경숙(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영향력은 계선자·유을용(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활방식과 구매행동에 있어서 친구나 이웃, 친척들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s α 는 .80이다. 자원지각도는 김양희 등(1992)과 박미금(1993)의 연구를 참고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 만족도는 Meadows(1991)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93이다.

매개변인인 재정 스트레스는 소득 스트레스, 지출 스트레스,

자산 스트레스, 부채 스트레스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재정 스트레스 척도는 이경옥(2000), 홍향숙(1999), 황덕순(1995)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와 스트레스를 경험한 경우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경험한 주부에 한정하여 설문문항에 표기하도록 하였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0점으로 스트레스 인지수준 평가문항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구분하였다. Cronbach's α 는 .93이다. 대처행동은 이경옥(2000), 황덕순(1995)의 연구를 조사시점의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대처행동은 계획관리 행동,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정보탐색 행동, 구매관리 행동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대처행동이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인 경제복지감은 Rowland, Dodder와 Nickols(1985)의 연구를 기초로 한정화(1997), 강기정(1999)의 재정복지척도와 경제복지감 모델의 측정도구를 참조하여 11문항으로 작성하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4. 연구모형



<그림 1> 연구모형

5.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할당표집(quota sampling)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유

배우자로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는 2001년 11월 12일~11월 16일까지 96부의 1차 예비조사와 2001년 12월 10일~12월 17일까지 100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질문을 삭제 혹은 추가하는 작업과 질문의 용어, 배열 등에 대한 점검 및 수정 작업을 거쳤다. 본 조사는 1, 2차의 예비조사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뒤, 2002년 1월 7일~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된 총 800부의 설문지 중 70.6%인 565부를 회수하였으며, 기재가 미비하여 분석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14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42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Cronbach's α 계수, 중다 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의 통계방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수준

1) 배경변인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표 1>과 같다. 연령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주부의 평균연령은 40.8세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9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부의 취업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업주부 55.3%, 취업주부 44.7%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유형을 볼 때, 관리·전문직 39.2%, 자영업 26.2%, 사무직 21.5%,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13.0%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가계의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계의 과반수 이상(50.6%)이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 속하는 것으로 분포되었다. 주택소유여부는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64.1%, 소유하지 못한 가계가 35.9%로 과반수 이상의 가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계의 부채액수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가 53.9%, 400만원 이상의 부채를 갖고 있는 가계는 13%로 조사되었다.

한편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주관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표 2>와 같다.

부부 의사소통도의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은 3.82점, 가족적응력은 3.30, 내외통제성은 3.61점, 생활정보 활용도는 3.18점, 준거집단영향력은 2.89점, 자원지각도는 3.63점 그리고 주부가 지각하는 남편의 직업 만족도는 3.06점으로 나타나 주관적 변인은 전반적으로 5점 만점에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2)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재정 스트레스의 일반적 수준은 <표 3>과

같다. 주부가 인지하는 재정 스트레스 점수는 5점만점에 2.61점으로 나타났다. 재정 스트레스 중 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산 스트레스로 5점만점에 3.10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시월(1999), 이정우·정진희(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가장의 은퇴 후 경제적 생활이 가정생활 제반영역 중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밝힌 지연경·조병은(1991)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부양의식의 약화 및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²⁾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팽배해 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의 일반적 수준 (N = 423)

| 변인 | 구분 | 빈도 | % | |
|----------------------------|-------------|---------------------|-----|------|
| 사 회 인 구 학 적 | 연령 | 35세 미만 | 32 | 7.6 |
| | | 35세 이상~40세 미만 | 143 | 33.8 |
| | | 40세 이상~45세 미만 | 157 | 37.1 |
| | | 45세 이상~50세 미만 | 70 | 16.5 |
| | | 50세 이상 | 21 | 5.0 |
| 사 회 인 구 학 적 | 교육수준 | 중졸 이하 | 25 | 5.9 |
| | | 고졸 | 191 | 45.2 |
| | | 대졸 | 183 | 43.3 |
| | | 대학원 이상 | 24 | 5.7 |
| 사 회 인 구 학 적 | 취업여부 | 전업주부 | 234 | 55.3 |
| | | 취업주부 | 189 | 44.7 |
| 사 회 인 구 학 적 | 남편의 직업유형 |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 | 55 | 13.0 |
| | | 사무직 | 91 | 21.5 |
| | | 자영업 | 111 | 26.2 |
| | | 관리·전문직 | 166 | 39.2 |
| | | | | |
| 사 회 인 구 학 적 | 월평균 소득 | 200만원 미만 | 66 | 15.6 |
| |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109 | 25.8 |
| | |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105 | 24.8 |
| | |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59 | 13.9 |
| | |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 48 | 11.3 |
| | | 600만원 이상 | 36 | 8.5 |
| 사 회 인 구 학 적 | 주택소유 여부 | 있다 | 271 | 64.1 |
| | | 없다 | 152 | 35.9 |
| 사 회 인 구 학 적 | 부채액수 | 100만원 미만 | 228 | 53.9 |
| | |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35 | 8.3 |
| |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 49 | 11.6 |
| | |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 36 | 8.5 |
| | |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 20 | 4.7 |
| | | 4000만원 이상 | 55 | 13.0 |

2) 중앙리서치조사(1999)에 의하면 한국인의 노후에 대한 가치관을 살펴본 결과 74.9%가“부부끼리 독립해서 살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12.7%는 “실버타운에서 살겠다”고 응답하였다.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살겠다는 한국인은 10.7%에 불과하였다.

※ 출처 : http://my.netian.com/~kmllee98/health/hoel_5.htm

<표 2> 주관적 변인의 일반적 수준(5점만점)

| 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
| 부부 의사소통도 | 3.42 | .78 |
| 가족응집성 | 3.82 | .59 |
| 가족적응력 | 3.30 | .67 |
| 내외통제성 | 3.61 | .44 |
| 생활정보활용도 | 3.18 | .72 |
| 준거집단영향력 | 2.89 | .66 |
| 자원지각도 | 3.63 | .63 |
| 남편의 직업 만족도 | 3.06 | .90 |

자산 스트레스 다음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소득 스트레스로 2.55점을 보였다. 일반지출(자녀의 등록금, 자녀의 용돈, 공과금 납부, 생활필수품 구입 등)과 특별지출(친·인척의 경조사비, 시부모 혹은 친정부모 부양비, 가전제품 및 가구 교체비, 자녀의 사교육비 등)을 포함한 지출 스트레스는 2.48점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의 부채 스트레스는 4개의 영역 중 2.32점으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표본 성격상 부채가 없거나 100만원 미만의 가계가 과반수 이상(53.9%)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 대상자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의 일반적 수준은 <표 3>과 같다.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으로는 계획관리 행동과 구매관리 행동이 각각 3.37점, 3.75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담·정보탐색 행동, 차용행동 그리고 지불연기 행동은 각각 2.30점, 2.13점, 2.02점으로 비교적 낮은 대처행동 점수를 보였다. 계획관리 행동과 구매관리 행동의 경우 대처행동으로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강이주·성영애(1999), 김혜정·이기영(1997), 성영애·양세정(1995), 손상희(1995), Varcoe(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5점만점)

| 변인 | 하위영역 | 평균 | 표준편차 |
|---------|------------|------|------|
| 재정 스트레스 | 지출 스트레스 | 2.48 | .77 |
| | 자산 스트레스 | 3.10 | 1.09 |
| | 소득 스트레스 | 2.55 | 1.12 |
| | 부채 스트레스 | 2.32 | 1.14 |
| | 전 체 | 2.61 | .77 |
| 대처행동 | 계획관리 행동 | 3.37 | .67 |
| | 지불연기 행동 | 2.02 | .82 |
| | 차용 행동 | 2.13 | .89 |
| | 상담·정보탐색 행동 | 2.30 | .75 |
| | 구매관리 행동 | 3.75 | .68 |
| 경제복지감 | 경제복지감 | 2.82 | .81 |

상담·정보탐색 행동의 경우 2.30점의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정보탐색활동에 대하여 소극적이라고 밝힌 김용자(1991)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한편 가계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채를 얻음으로써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대처행동으로서 차용행동 점수는 2.13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박선옥(1996), 최자령·임정빈(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마지막 대처행동으로 지불연기 행동은 2.02점으로 5개의 대처행동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4)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경제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표 3>과 같다. 주부의 경제복지감은 5점만점에 2.82점을 보였다. 한정화(1997)의 3.13점, 최자령·임정빈(1996)의 4.25점보다는 다소 낮지만 계선자·유을용(1999)의 2.76점보다는 다소 높은 경향이다. 이와 같이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시점의 경제환경 및 경기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2. 배경변인이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배경변인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와 같다.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beta=.10$) 객관적 경제변인 중 월평균소득($\beta=-.19$), 주택소유여부($\beta=-.14$), 부채액수($\beta=.13$) 주관적 변인 중 내외통제성($\beta=-.17$), 준거집단영향력($\beta=.21$), 남편의 직업 만족도($\beta=-.31$)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7%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계의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수록, 부채액수가 많을수록 재정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변인을 살펴보면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재정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으로 살펴볼 때 재정 스트레스 중 지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연령($\beta=.10$), 월평균소득($\beta=-.18$), 부채액수($\beta=.13$), 내외통제성($\beta=-.20$), 준거집단영향력($\beta=.21$), 남편의 직업만족도($\beta=-.20$)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32%였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액수가 높을수록 외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영향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자산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배경변인 중 연령($\beta=.11$), 주부의 취업여부($\beta=-.10$), 월평균소득($\beta=-.21$), 주택소유여부($\beta=-.13$), 준거집단영향력($\beta=.14$), 남편의 직업 만족도($\beta=-.33$)가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영향력은 51%였다. 주부의 연령이 많고, 월평균소득이 낮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며,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남편의

<표 4> 배경변인이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 독립변인 | | 종속변인 | 지출 스트레스 | | 자산 스트레스 | | 소득 스트레스 | | 부채 스트레스 | | 전체 |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배경변인 | 사회인구학적 변인 | 연령 | .16 | .10* | -.02 | .11* | .00 | .00 | .01 | .07 | 0.1 | .10* |
| | | 교육수준 | -.35 | -.10 | -.03 | -.07 | -.02 | -.05 | -.01 | -.03 | -.02 | -.09 |
| | | 취업여부 ^a | -.64 | -.04 | -.22 | -.10* | -.05 | -.03 | .06 | .03 | -.07 | -.05 |
| | | [남편의 직업유형] ^b | | | | | | | | | | |
| | | 사무직 | .09 | .04 | -.04 | .01 | .23 | .07 | -.06 | -.02 | .12 | .51 |
| | 자영업 | .18 | .10 | .23 | .09 | -.68 | -.25*** | -.03 | -.01 | -.03 | -.02 | |
| | 관리·전문직 | .19 | .12 | .25 | .11 | -.53 | -.23*** | .11 | .05 | .06 | .04 | |
| | 객관적 경제 변인 | 월평균소득 | -.00 | -.18*** | -.00 | -.21*** | -.00 | -.11* | -.00 | -.20*** | -.00 | -.19*** |
| | | 주택소유여부 ^c | -.09 | -.06 | -.29 | -.13** | -.35 | -.15*** | -.29 | -.12* | -.23 | -.14** |
| | | 부채액수 | .00 | .13** | .00 | .02 | .00 | .06 | .00 | .28*** | .00 | .13** |
| 주관적 변인 | 부부 의사소통도 | -.01 | -.02 | -.01 | -.01 | -.06 | -.05 | -.15 | -.10 | -.02 | -.02 | |
| | 가족응집성 | .08 | .06 | .22 | .12 | .05 | .03 | .08 | .05 | .11 | .08 | |
| | 가족적응력 | -.05 | -.04 | -.10 | -.06 | .09 | .06 | .06 | .04 | -.02 | -.02 | |
| | 내외통제성 | -.34 | -.20*** | -.22 | -.09 | -.23 | -.09* | -.34 | -.14** | -.29 | -.17*** | |
| | 생활정보활용도 | .09 | .09 | -.05 | -.03 | .07 | .05 | .04 | .03 | .05 | .05 | |
| | 준거집단영향력 | .24 | .21*** | .23 | .14** | .21 | .13*** | .22 | .13** | .24 | .21*** | |
| | 자원지각도 | -.04 | -.04 | -.08 | -.05 | -.02 | -.01 | -.06 | -.03 | -.06 | -.05 | |
|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 -.17 | -.20*** | -.40 | -.33*** | -.47 | -.37*** | -.15 | -.12 | -.27 | -.31*** | | |
| 상수 | | 3.17 | | 4.15 | | 4.41 | | 2.92 | | 3.43 | | |
| R ² | | .32 | | .51 | | .23 | | .40 | | .27 | | |
| F값 및 유의도 | | 9.56*** | | 21.29*** | | 6.10*** | | 12.90*** | | 7.63*** | | |

*p<.05 **p<.01 ***p<.001

a: 주부의 직업이 있는 경우를 1, 주부의 직업이 없는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업,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c: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산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스트레스는 남편의 직업유형 중 자영업 ($\beta=-.25$), 관리·전문직($\beta=-.23$)과 월평균소득($\beta=-.11$), 주택 소유여부($\beta=-.15$), 내외통제성($\beta=-.09$), 준거집단영향력($\beta=.13$), 남편의 직업 만족도($\beta=-.37$)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23%였다. 즉, 남편의 직업에 있어 단순 노무직·생산 기능직이 자영업 혹은 관리·전문직보다,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이 주택을 소유한 집단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외적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남편의 직업 만족도를 낮게 인지할수록 주부의 소득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부채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beta=-.20$), 주택소유여부($\beta=-.12$), 부채액수($\beta=.28$), 내외통제성($\beta=-.14$), 준거집단영향력($\beta=.13$)의 변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의 영향력은 40%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소득이 낮을수록 부채액수가 많을수록 외적통제 성향이 강할수록 준거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의 주부가 부채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배경변인이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주부의 연령은 지출 스트레스와 자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 및 자산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광주(199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나 Varcoe(1990)와 최자령·임정빈(1996)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교육비의 증가³⁾ 및 친인척 경조사 증가, 장차 자녀의 결혼준비금 혹은 주부 자신의 노후자금 준비금 등 여러 가지 경제자원의 요구가 다른 시기에 비하여 많으므로 지출 및 자산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의 취업여부도 자산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취업주부가 비 취업주부보다 재정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부가 직업을 가짐으로 가정 내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업주부와 비교할 때 스트레스를 덜 인지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박선옥(1996)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를 보다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업주부인 경우 취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2002년 3월 현재 전국 8개 시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월 평균 10만원~30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경우 30만원~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가정이 23.8%로 나타났으며 20.9%는 50만원~7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 <http://www.consumernet.or.kr/>

우리사회에 있어서 기혼여성이 취업을 한다는 것 혹은 취업상황을 유지한다는 것⁴⁾은 매우 어렵다. 실제 많은 기혼 여성들이 취업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⁵⁾에서 사회·정부차원에서는 기혼 여성들의 취업 알선과 이의 실행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의 직업유형은 주부의 소득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편이 단순노문직·생산기능직의 직업을 가진 경우 자영직 혹은 관리·전문직의 경우보다 스트레스가 높았다. 남편의 직업유형은 소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계의 월평균소득은 지출, 자산, 소득, 부채 스트레스 등 모든 재정 스트레스 영역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고보선·임정민(1992), 김미현 등(1993), 박선옥(1996), 이정우·최덕경(1992), Bruce(199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로써 가계소득의 양은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도 자산, 소득, 부채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주부는 주택을 소유한 주부보다 높은 재정 스트레스 인지도를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택을 자산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라는 비교적 큰 개념의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경우 재정 스트레스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부채역수는 지출 및 부채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가계의 부채역수가 많을수록 주부 자신은 지출과 부채 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정위기에 처한 가계의 경우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차용행동을 하기 쉬우나 개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차용행동은 신용사회에 있어서 신용불량자로 낙인 되기 쉬울 뿐 아니라 가정파탄(조선일보, 2001년 4월 16일 자)까지 초래하기가 쉬우므로 특히 유념하여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관적 변인에 의한 재정 스트레스를 볼 때 내외통제성은 지출, 소득, 부채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적통제성향이 높을수록 주부가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Hira 등(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주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를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아닌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믿는 운명지향론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개척한다는 진취적인 인생관으로 가치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주부의 준거집단영향력 변인은 재정 스트레스의 모든 영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준거집단영향력이 높을수록 소득, 자산, 지출, 부채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사회계층이 높은 준거집단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보다 높게 재정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는 소비지향적인 대중문화 즉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문화를 바로 편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도 올바른 가치관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직업만족도는 지출, 자산, 소득 스트레스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낮을수록 재정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직업만족도라 할 때 보수적인 면, 소득의 규칙적인 면, 그리고 직업의 안정적인 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들의 요소 중 하나라도 불만족하면 재정 스트레스를 인지하기 때문이다.

3.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

조사대상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라 대처행동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재정 스트레스에 따라 대처행동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재정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처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경제적 불안이 큰 가계일수록 대처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났음을 밝힌 강이주·성영애(1999), 황덕순(1993), Voydanoff와 Donnelly(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대처행동의 하위영역을 볼때 지불연기 행동($p<.001$), 차용행동($p<.001$), 상담·정보탐색 행동($p<.05$)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계획관리 행동과 구매관리 행동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출 스트레스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나타낸 대처행동은 지불연기 행동($p<.001$), 차용행동($p<.001$), 상담·정보탐색 행동($p<.05$), 구매관리 행동($p<.05$)으로 나타났다. 즉 지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는 집단이 낮게 인지하는 집단보다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상담·정보탐색 행동, 구매관리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스트레스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보인 대처행동은 지불연기 행동($p<.001$), 차용행동($p<.05$), 구매관리 행동($p<.001$)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구매관리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득 스트레스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보인 대처행동은 지불연기 행동($p<.001$), 차용행동($p<.05$), 구매관리 행동($p<.05$)

4) 통계청(한국인의 사회지표, 1998)에 의하면 54.6%의 한국 여성들은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가사 및 육아부담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4.8%는 사회적 편견, 9.9%는 불리한 승진·근로여건을 들고 있다.

5) 여성부(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1999)에 의하면 조사대상 남성과 여성 모두 맞벌이 희망률이 평균 75.2%에 달해 4명중 3명은 맞벌이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http://www.moge.go.kr/>

<표 5>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

| 재정스트레스 | | 대처행동 | | | 계획관리 행동 | | | 지불연기 행동 | | | 차용 행동 | | | 상담·정보탐색 행동 | | | 구매관리 행동 | | |
|---------|-------|------|--------|------|---------|--------|-------|---------|--------|-------|-------|--------|------|------------|--------|------|---------|--|--|
| | | 평균 | Duncan | F값 | 평균 | Duncan | F값 | 평균 | Duncan | F값 | 평균 | Duncan | F값 | 평균 | Duncan | F값 | | | |
| 지출 스트레스 | 높은 집단 | 3.40 | | | 2.45 | C | *** | 2.53 | C | *** | 2.37 | B | . | 3.82 | B | . | | | |
| | 중간 집단 | 3.37 | | .620 | 2.00 | B | 30.50 | 2.10 | B | 23.96 | 2.35 | B | | 3.79 | B | | | | |
| | 낮은 집단 | 3.30 | | | 1.67 | A | | 1.78 | A | | 2.11 | A | 4.53 | 3.60 | A | 3.93 | | | |
| 자산 스트레스 | 높은 집단 | 3.45 | | | 2.35 | C | *** | 2.27 | B | . | 2.33 | | | 3.97 | B | *** | | | |
| | 중간 집단 | 3.32 | | 1.62 | 2.11 | B | 25.93 | 2.15 | AB | 3.78 | 2.34 | | 2.27 | 3.66 | A | 8.37 | | | |
| | 낮은 집단 | 3.31 | | | 1.62 | A | | 1.96 | A | | 2.16 | | | 3.67 | A | | | | |
| 소득 스트레스 | 높은 집단 | 3.44 | | | 2.41 | B | *** | 2.29 | B | . | 2.39 | | | 3.87 | B | . | | | |
| | 중간 집단 | 3.29 | | 1.77 | 1.92 | A | 21.25 | 2.03 | A | 3.39 | 2.23 | | 1.82 | 3.70 | AB | 3.39 | | | |
| | 낮은 집단 | 3.38 | | | 1.78 | A | | 2.07 | AB | | 2.27 | | | 3.65 | A | | | | |
| 부채 스트레스 | 높은 집단 | 3.38 | | | 2.37 | C | *** | 2.61 | C | *** | 2.45 | B | .. | 3.75 | | | | | |
| | 중간 집단 | 3.28 | | 2.64 | 1.94 | B | 24.37 | 1.99 | B | 46.88 | 2.23 | A | 5.49 | 3.79 | | 5.96 | | | |
| | 낮은 집단 | 3.47 | | | 1.69 | A | | 1.66 | A | | 2.16 | A | | 3.69 | | | | | |
| 전 체 | 높은 집단 | 3.40 | | | 2.52 | C | *** | 2.41 | C | *** | 2.37 | B | . | 3.83 | | | | | |
| | 중간 집단 | 3.38 | | .748 | 2.00 | B | 39.67 | 2.18 | B | 15.73 | 2.37 | B | | 3.76 | | 2.17 | | | |
| | 낮은 집단 | 3.30 | | | 1.62 | A | | 1.79 | A | | 2.11 | A | 4.71 | 3.64 | | | | | |

* p<.05 **p<.01 ***p<.001

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지불연기 행동, 차용행동, 구매관리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계의 필요도에 비하여 소득이 부족한 경우 소비지출 감소 등의 대처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 강이주·성영애(1999), Elder 등(1992)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채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대처행동으로서 지불연기 행동(p<.001), 차용행동(p<.001), 상담·정보탐색 행동(p<.01)에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특히 다른 영역과는 달리 차용행동에서 집단간 차이를 많이 보였는데 이는 손상희(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차용행동은 도시 가계의 가계재정난 극복에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험수위를 초과한 가계의 무분별한 차용행동은 가계관리자를 포함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악화되어 가는 재정상황은 더욱 극복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부채관리 교육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가계의 부채상황을 현명하게 조절하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도시주부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복지감

도시주부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복지감은 <표 6>과 같다. 대처행동 중 지불연기 행동(p<.001)과 상담·정보탐색 행동(p<.05) 및 구매관리 행동(p<.01)이 경제복지감에 대해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지불연기 행동은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며 대처행동으로서 지불연기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은 소극적으로 하는 집단에 비하여 경제복지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궁극적인 대처방안

이 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위기만 극복하는 행동에 불과한 지불연기 행동은 주부의 심리적인 부담감만 가중시킬 뿐 경제적 복지감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도시주부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복지감

| 대처행동 | | 경제복지감 | | |
|------------|---------|-------|--------|----------|
| | | 평균 | Duncan | F값 |
| 계획관리 행동 | 적극적인 집단 | 2.69 | | 2.55 |
| | 중간 집단 | 2.78 | | |
| | 소극적인 집단 | 2.93 | | |
| 지불연기 행동 | 적극적인 집단 | 2.44 | A | 15.66*** |
| | 중간 집단 | 2.84 | B | |
| | 소극적인 집단 | 3.02 | B | |
| 차용 행동 | 적극적인 집단 | 2.79 | | 2.32 |
| | 중간 집단 | 2.86 | | |
| | 소극적인 집단 | 2.64 | | |
| 상담·정보탐색 행동 | 적극적인 집단 | 2.94 | B | 3.75* |
| | 중간 집단 | 2.69 | A | |
| | 소극적인 집단 | 2.85 | AB | |
| 구매관리 행동 | 적극적인 집단 | 2.63 | A | 5.85** |
| | 중간 집단 | 2.79 | A | |
| | 소극적인 집단 | 3.05 | B | |

*p<.05 **p<.01 ***p<.001

상담·정보탐색 행동도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p<.05)를 보여 재정문제에 대해 상담·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재정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소득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와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는 집단의 주부는 경제복지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처행동을 통한 주부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가계의 상황을 파악해 보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안책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주부의 대처행동으로서 구매관리 행동은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집단간 유의한 차이(p<.01)를 나타내었다. 즉 구매관리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은 구매관리 행동을 소극적으로 하는 집단에 비하여 경제복지감이 낮게 나타났다. 주부의 구매관리를 통한 지출절감 전략은 상황적 요인에 대한 대처적 성격이 강한 전략이지만 지나친 지출억제는 경제복지감을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도시주부의 경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재정

스트레스 변인, 대처행동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1단계에서는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객관적 경제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주관적 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다음 3단계에서는 재정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대처행동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7>.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 중 주부의 연령($\beta=-.13$), 남편의 직업유형 중 사무직($\beta=-.14$), 월평균소득($\beta=.37$), 주택소유여부($\beta=.16$), 부채액수($\beta=-.10$)등이 영향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주부의 연령과 부채액수가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이 아닌 사무직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리고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임정빈 등(1994), 김연정·김순미(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남편의 직업유형의 경우 사무직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에 비하여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업유형의

<표 7>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력

| 변인 |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 4 단계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 변인 | 연령 | -.02 | -.13* | -.01 | -.06 | -.00 | -.03 | -.00 | -.03 |
| | 교육수준 | .04 | .12 | .01 | .04 | .00 | .01 | -.00 | -.03 |
| | 취업여부 ^a | .09 | .06 | .09 | .06 | .07 | .05 | .04 | .03 |
| | [남편의 직업유형] ^b | | | | | | | | |
| | 사무직 | -.34 | -.14* | -.24 | -.10* | -.22 | -.09* | -.24 | -.10* |
| | 자영업 | -.04 | -.03 | -.07 | -.04 | -.01 | -.01 | -.02 | -.01 |
| | 관리·전문직 | .06 | .04 | -.03 | -.02 | .05 | .04 | .04 | .03 |
| | 월평균소득 | .00 | .37*** | .00 | .23*** | .00 | .16*** | .00 | .14** |
| 주택소유여부 ^c | .26 | .16** | .16 | .10* | .09 | .06 | .09 | .06 | |
| 부채액수 | -.00 | -.10* | -.00 | -.07 | -.00 | -.02 | -.00 | -.02 | |
| 주관적 변인 | 부부 의사소통도 | | | .02 | .02 | .03 | .03 | .03 | .04 |
| | 가족 응집성 | | | -.02 | -.02 | .00 | .00 | .02 | .02 |
| | 가족 적응력 | | | .04 | .04 | .02 | .02 | .01 | .02 |
| | 내외통제성 | | | .03 | .02 | -.04 | -.03 | -.01 | -.01 |
| | 생활정보활용도 | | | .12 | .11* | .14 | .12** | .16 | .14** |
| | 준거집단영향력 | | | -.06 | -.06 | .01 | .02 | .01 | .01 |
| | 자원지각도 | | | .07 | .06 | .04 | .03 | .08 | .07 |
| 남편의 직업 만족도 | | | .37 | .42*** | .31 | .35*** | .29 | .33*** | |
| 재정 스트레스 | 지출 스트레스 | | | | | -.18 | -.18** | -.19 | -.18** |
| | 자산 스트레스 | | | | | -.09 | -.14* | -.09 | -.12* |
| | 소득 스트레스 | | | | | .03 | .05 | .03 | .05 |
| | 부채 스트레스 | | | | | -.07 | -.10 | -.10 | -.14* |
| 대처행동 | 계획관리 행동 | | | | | | | -.13 | -.11* |
| | 지불연기 행동 | | | | | | | -.00 | -.01 |
| | 차용 행동 | | | | | | | .05 | .07 |
| | 상담·정보탐색 행동 | | | | | | | .06 | .06 |
| | 구매관리 행동 | | | | | | | -.08 | -.07 |
| 상수 | 2.73 | | 1.07 | | 1.99 | | 2.38 | | |
| R ² | .30 | | .47 | | .55 | | .58 | | |
| F값 및 유의도 | 14.72*** | | 15.96*** | | 17.42*** | | 15.20*** | | |

a: 주부의 직업이 있는 경우를 1, 주부의 직업이 없는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b: 남편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생산기능직인 경우를 1, 사무직, 자영업, 관리·전문직인 경우를 각각 0으로 둔 가변수이다.

c: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0으로 둔 가변수이다.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월평균소득은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강기정(1999), 계선자·박미금(1994), 계선자·유을용(1999), 이경옥(2000), 홍향숙(1999), Kratzer(1992), Hira와 Mugenda(1998), Poter와 Garman(1993), Royal(1995), Sumarwan과 Hira(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주부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계는 소득원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의 소유여부 변인도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주택을 소유한 가계의 주부가 전세나 월세 가계의 주부보다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라야 하기에 자신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자산의 개념이 강함으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는 주부에게 경제복지감을 부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의 수립과 실시로 자산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택의 현실적인 보급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계가 소유한 부채는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채액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낮게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⁶⁾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부채관리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채에 대하여 보다 현명한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2단계에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한 결과 생활정보활용도($\beta=.11$), 남편의 직업 만족도($\beta=.42$)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생활정보활용도가 높을수록 주부의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가, 주식 그리고 가계재무관리와 관련된 생활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보다 경제적인 가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주관적 변인 중 남편의 직업 만족도 역시 경제복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주부의 경우 직업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경제복지감이 높다는 계선자(2000)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3단계로 재정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지출 스트레스($\beta=-.18$), 자산 스트레스($\beta=-.14$)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지출 및 자산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할수록 경제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 스트레스는 경제복지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입증된 바이며 이러한 결과는 황덕순(1995), Conger 등(1990), Walson과 Fitzsimmons(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마지막으로 대처행동 변인을 추가한 결과 계획관리 행동($\beta=-.11$)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이경옥(2000) 과 일치한다. 이는 가족원의 요구수준을 낮추거나 가족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긴축재정을 실행할 경우 금전적인 실제 수익은 발생할 수 있을지라도 과정 중 발생하는 경제적 긴장감으로 가계관리자인 주부의 경제적 복지감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위기 상황에서 가계관리자의 지나친 가계예산 축소는 오히려 경제복지감을 감소시키고 가족들의 경제적인 긴장감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예산축소 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위기관리라 할 수 있는 가계의 자원확충과 관련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각 단계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30%($p<.001$)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주관적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7%($p<.001$)로 1단계에 비해 17%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3단계에서 재정 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55%($p<.001$)로 8%의 설명력이 증가하였고 마지막 4단계에서 대처행동 변인을 추가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58%($p<.01$)로 3%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 주관적 변인, 재정 스트레스 변인, 대처행동 변인의 순으로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경제복지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 및 객관적 경제변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도시주부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월평균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포함하여 부채액수를 감소시키는 등 사회 인구 및 경제적 변인과 관련된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도시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 중 자산 스트레스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노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재해 발생률의 증가 및 명예퇴적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점에서 노후준비자금 및 비상준비금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양적·질적 확대 및 실질적인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실시로 특히, 저소득층 주부들의 자산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주부의 대처행동 중 계획관리 행동과 구매관리 행동이 다른 대처행동 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주부들의 보다 체계적인 가계재무관리를 위해서 재무계획수립 및 수행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부들의 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소비자재무설계사 혹은 소비자 전문상담사 제도를 보다 확고히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2001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규모는 335조원에 이르고, 가처분소득에서 가계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선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 출처 : 조선일보, 2002년2월27일자(<http://www.chosun.com/>)

세째, 주관적 변인 중 외적 통제성향이 강할수록 주부들의 재정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즉 가계의 재정위기를 자신이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운명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을수록 가계관리자의 스트레스는 높았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가치관에 입각하여 가계재정관리에도 임한다면 가계의 경제적 곤란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련교육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각종 대중매체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일한 만큼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째,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재정 스트레스에 따라 대처행동은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부채 스트레스의 경우 대처행동으로서 차용행동이 매우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가계의 반복되는 차용행동은 궁극적인 대처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는 가계관리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부채관리 교육과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여 위험수위에 있는 가계부채상황을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도시주부의 대처행동에 따른 경제복지감을 살펴본 결과 상담·정보탐색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경제복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처행동을 통한 주부의 경제복지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주변 사람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주부 스스로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대처행동 중 계획관리 행동은 경제복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재정위기 상황하에서 주부의 지나친 가계 예산의 축소는 오히려 경제복지감을 감소시키고 가족들의 긴장감을 증가시키므로 적절한 예산축소 전략과 함께 적극적인 위기관리라 할 수 있는 가계의 자원 확장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재정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의 척도는 연구자마다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방대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리 및 분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실성 있는 척도개발과 표준화된 모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재정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은 비교적 소극적 대처행동 유형에 근접하도록 분류·연구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소극적 대처행동 이외에 적극적인 대처행동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그리고 경제복지감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가계의 궁극적 목표인 경제

복지 향상에 적합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부의 재정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행동은 경제복지감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가계관리자인 주부가 재정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가 가계의 재정위기에 따른 대처행동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자원과 정보가 부족한 도시가계를 위한 가계재무관리 및 재무상담 그리고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3년 1월 3일

□ 심사 일 : 2003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4월 24일

【참 고 문 헌】

- 강기정(1999).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유형, 가정경제기여도 및 경제복지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강이주·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계선자·강기정(1998). 도시주부의 주관적 가정경제 기여감에 따른 체계적 접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 21-38.
- _____. 유을용(1995). 신세대 주부의 외국상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지. 10, 27-48.
- _____. 유을용(1999). 도시주부의 가계재무관리 능력 및 재정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35-49.
- _____.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59-78.
- _____. (2000). 도시 취업주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과 경제복지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4(1), 95-111.
- 고보선(1996).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관리체계와 가계재정복지.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이영호(1995). 가정경제복지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가 변인의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3(6), 269-280.
- _____. 임정민(1998).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주관적 재정복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1), 59-77.
-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접근.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이정우(1993). 취업주부의 객관적·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경신·김오남(1997). 편모가족의 가족자원, 대처와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5(4), 211-228.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적응력 및 복지감연구. 숙대논문집. 33, 31-56.
- 김미진(1995). 중년기 여성이 지각한 가족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미현·류점숙·신효식(1993). 주부의 가정생활상의 Stress와 심리적 손상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2), 111-126.

- 김수연(1998). 가족사정척도 개발과 타당도 검증.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소비자학연구*. 10(3), 101-121.
- 김연정·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양희·김진희·박정윤(2001). 중년기 남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57-172.
- 김용자(1991). 소비자 정보탐색 활동에 관한 연구. *소비생활연구*. 7, 27-36.
-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수립.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김재경·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53-74.
- 김진숙(1996). 재정상황에 대한 인지도가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405-419.
- 김정훈(1996). 부부사이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14.
- 김효정(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1.
- (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김혜정·이기영(1997). 주부의 화폐관리전략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7-26.
- 노자경(1996). 농가주부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각수준과 관련변수. *한국농촌생활과학학회지*. 7(2), 139-152.
- 두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218-234.
-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계선자(1994).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06-117.
-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 화폐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 준비행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67-179.
-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소재 및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 심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9(2), 29-50.
- 안승철·김년희(1999).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 관련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13(7), 111-125.
- 이광주(1990).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이기영·조영희(1992). 관리기능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0(4), 279-292.
- 이기훈(1998). 가정경제학. 교문사.
- 이미리(1995). 고 3청소년의 시험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과 우울증 수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89-98.
- 이상철(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141-153.
- 이선영·이연숙(1997).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만족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31-43.
- 이정우·정진희(1999). 도시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51-65.
- _____. 최덕경(1992).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5-130.
- 이종혜(1993). 도시가계의 경제적 안정도와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조미환·이영호(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정문자·이미리(1998). 도시저소득층 주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척도 개발과 대처행동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36(12), 129-143.
- 장윤옥(1997). 가정자원, 통제소재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87-300.
- _____. 정서린(1998).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 자원 적정도 지각 및 통제소재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대처방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79-93.
- 정서린·장윤옥(1996). 가정자원 정도 지각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6), 353-365.
- 정신희·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정용선·신용선·이경옥(2001). AMOS검증을 통한 가치·경제위기 대처행동·경제생활만족감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교를 통해 -. *소비자학 연구*. 12(1), 75-100.
- 정혜경(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소비행동.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제은석(1999). 가계의 부채부담과 경제적 대처행동. 인천대 석사학위논문.
- 조혜정(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체계적 접근.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임정빈(1994). 가정생활사건과 가정관리 행동성향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5), 15-27.
- 주인숙(1995).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이연숙(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 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5.
- 지연경·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최연실(1996). 청소년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최자령·임정빈(1996).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

- 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75-189.
- 한정화(1997). 도시주부의 가족응집력과 적응력에 따른 경제복지감.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황덕순(1993).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69-82.
- _____ (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 정운영(2001). 재무태도와 재무 의사소통이 재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대한가정학회지. 39(8). 121-134.
- 홍은실(1996). 도시주부의 가치와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만족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홍향숙(1999). 가계의 경제적 불안정성 유형에 따른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Bartholomae, S.(2001). *Financial stress and coping resource : A comparative analysis of White, Black and Hispanics*. The Ohio State University. Ph.D.
- Bowen, C. F., Lago, D. J., & Furry, M. M.(1997). Money management in famili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with a racial, ethnic, and limited income perspective.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9(2). 32-42.
- Bruce, M. L.(1996). *Problem-and emotion-focused coping strategies in household financial management : Income expansion versus money devaluation*. Saint Louis University. Ph.D.
- Bueher & Hogan(1986). Planning styles in single parent families. *HERJ* 11(1). 67-75.
- Burr, W. R., Day, R. D. & Bahr, K. S.(1995). 최연실 외 역,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 서울 : 하우출판사.
- Chancey, D.(1997). *Economic distress and psychological outcomes: Using objective and subjective measure of economic di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mood and self-satisfaction moderated by religiosity*.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h.D.
- Compas, B. E., Ordsan, P. G., & Grant, K. E.(1993). Adolescent stress and coping :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6. 331-349.
- Conger, R. D., Elder G. H., Lorenz, F. O., Conger, K. J., Huck, S & Melby., J. N.(1990). Linking economic hardship to marital quality and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643-656.
- _____ & Retting, K. D.(1993). The Role of Perception in the Intention to Change the Family Financial Situa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65-389.
- Davis, E. P., & Helmick, S.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ence point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4(1). 123-131.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 (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Inc.
- Ebata, A. T. & Moos, R. H.(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Elder, G. H. Jr., Conger, R. D, Foster, E. M. & Ardel, M(1992). Families under economic pressure. *Journal of Family Issues*. 13(1). 5-37.
- Enevoldsen, B. L.(1994). *Factors that influence a rural financial manager's satisfaction with current economic well-being and ability to achieve success and get ahead*. University of Minnesota. Ph.D.
- Fitzsimmons & Leach, L. J.(1994). Net worth change : Beginning and Expanding life cycle stag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65-82.
- Ganzert, R. R.(2000). *The effects of financial stress in higher educ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Ph.D.
- Godwin, D., & Carrol, D. D.(1986). Financial management attitude and behavior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77-96.
- Goldsmith, E. B.(1996). *Resource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Florida State University : West Publishing Company.
- Gomel, J. N.(1995). *The effects of economic hardship on family functioning : A multi-ethnic perspective(Coping, Well-Being)*.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Ph.D.
- Hafstrom, J. L.(1986). *Consumption level as it relates to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96-107.
- Hira & Mugenda, O.M.(1998). Predictors of Financial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retirees and non-retiree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75-83.
- Hira, T. K., Fitzsimmons, V. S., Hafstrom, J. L., & Bauer, J. W.(1993). Factors Associated with Expectation of Household's Future Financial Conditio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37-256.
- Hyun, E., Bauer, J. W., & Hogan, M. J.(1993). Resource adequacy percep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wives and husbands : A nonrecursive model.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215-236.
- Kerkman, B.C., Lee, T.R, Lown, J.M. & Allgood, S.M.(2000).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problems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recently married university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11(2). 55-64.
- Kratzer, C. Y.(1992). *Perceived economic well-being of three cohorts of rural female household financial managers(women financial managers)*.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 Lazarus, R. & Folkman, S.(1991).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ee, P.(2000). *Earnings management at different stages of financial distres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Ph.D.
- Lown, J. M.(1986). Family financial well-being : guidance from research. *Journal of home economics*, 4. 5-8.
- Mammen, S., Helmick, S. A., & Metzen, E. J.(1986). Impact of finance donation on life satisfaction. Quality of life research. Illinoi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86-95.
- McGregor, L. T. & Goldsmith, E. B(1998). Expanding our

-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2-6.
- Meadows, L. M.(1991). *Women's Contribution to Family Resources*. Calgary Univ. Ph.D.
- Mugenda, O. M., Hira, T. K. & Fanslow, A. M.(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of quality of life. *Lifestyle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Patricia, D.E., Helmick & Sandra A.(1985). Family financial satisfaction : the impact of refer points. *Journal of Home economics*. 14(1). 123-131.
- Poter & Garman, T.(1993). Testing a conceptual model of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35-164.
- Rowland, V. T., Dodder., R. A. & Nickols., S. T.(1985).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 *Development of a scale, HERJ*. 14(2). 218-225.
- Royal, J. H.(1995). *Financial well-being : A conceptual model of two north carolina countries*. North Carolina State Univ. Ph.D.
- Sumarwan, U., & Hira, T. K.(1993). The effects of perceived locus of control and perceived income adequacy on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of rural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4). 343-363.
- Vandsburger, E. H.(2001). *The effects of family resources on the functioning of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stress*.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Ph.D.
- Varcoe, K., 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of Home economics*. 14. 57-69.
- Vandsburger, E.H.(2001). *The effect of family resiliency resources on the functioning of families experiencing economic distress*.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Ph.D.
- Voydanoff, P. & Donnelly, B. W.(1989). Economic distress and mental health : The role of family coping resources and behaviors, *Lifestyle : Family and Economic Issues*. 10(2). 139-161.
- Walson, C. O.(1991). *Determinants of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 An analysis of a composite measure*. University of Illinois. Ph.D.
- _____ & Fitzsimmons, V. S.(1993). Financial Manager's Perception of Rural Household Economic Well-Be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mposite Measu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4(3). 193-214.
- Winter, Morris. & Rubic.(1988). The subjective assessment of financial well-being among farmer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 34. 293-299.
- Williams, F. L. & Ness, A. J.(1998). Household activities of men and women and their effect upon perceived sense of control and satisfaction with level of living. *Journal of Consumer Studies & Home Economics*. 22(3). 169-190.
- Zinka, K. & Buckner, W.(1989). Financial Problems of Consumer in an Urban Environment.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The Proceedings*. 172.
- 대한매일신문(2001), 실질소득증가를 문화 지속, 2001년 9월 29일자. (<http://www.kdaily.com>)
- 동아일보(2001), 9월 소비자물가 3.2% 올라, 2001년 9월 29일 자. (<http://www.donga.com>)
- 조선일보(1999), 한국인의 직장생활, 1999년 12월 31일 자.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2001), 소비자파산 신청 3개월째 급증, 2001년 4월 16일자.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2002), 가계빚 335조... 가처분소득의 90%선, 2002년 2월 27일 자. (<http://www.chosun.com>)
- http://www.my.netian.com/~kmlee98/health/heol_5.htm(노령화사회의식조사, 중앙리서치)
- <http://www.moge.go.kr/>(여성부)
- <http://www.chosun.com>(조선일보)
- <http://www.consumernet.or.kr/>(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